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통해 각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느님을 믿고 의탁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삶이 자기 혼자서만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신앙인은 다른 이에게서 신앙을 받으며, 그 받은 신앙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가톨릭교회교리서, 166항)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내어주심과 부르심[계시]에, 각자가 맞는 방법으로 응답[신앙]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바오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10,14-15).

복음(기쁜 소식)을 선포한다(전한다)는 것, 즉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믿게 될 것이고,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삶에서, “민중들의 아픔으로,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탄압을 중지하십시오!” 라고 외치며 엘살바도르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셨던 로메로 대주교님의 삶에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법을 잊고 고통 받는 자들을 외면한 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난한 이들, 고통 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 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포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즉 세상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첫째 편지를 읽어 보자. ‘복음을 선포한다’ 는 말 대신에 ‘사랑을 실천한다’ 는 말로 바꾸어 읽어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1코린 9,16).

[2015년 6월14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브랜든 존스톤 (키모)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모든 연령들을 위해서	연령회	생		
연	서순금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김어거스틴, 헬레나	생		
연	서순금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5구역 일동	생		

자	전 려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7월28일(화)	연중 제17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3,670.00 \$ 1,036.00
7월29일(수)	성녀 마르타 기념일	오전 7 : 30	교구 원 캠페인 토요 특전	\$ - \$ 65.00
7월30일(목)	연중 제17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143.00 \$ 157.00
7월31일(금)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기념일	오후 7: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꽃병헌)	\$ 158.00 \$ 50.00
8월1일(토)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학자	오전 10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1,100.00 \$ 6,379.00
8월2일(일)	연중 제18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6 장순옥 4~7월 김형일 5~7월 류정임 6~7월 김옥동 김중순 6월 김은영 김재열 7월 김선식 윤재경 현익균 김애력 안병훈 김덕홍 지복원 이강덕 김진태 박정희 고정하 엄용덕 7~8월 장석자 7~9월 주문엽 9~10월 김용욱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매주 화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세례예식

- ◆ 8월 16일(일) 교중미사 중
- ◆ 화요일 교리반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세요.

3. 봉성체(병자 영성체)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4.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 ◆ 7 30일(목) 시작됩니다. 예비신자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5.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 ◆ 일시 8월 2일(주일) 11시 미사 및 오후 1시 30분
- ◆ 주제 : 우리 삶 께 안기
- ◆ 특별 강론에 참여해주세요 영적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6.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7. 성모 성심 미사

- ◆ 8월 1일 (토) 10시 30분
- ◆ 미사후에 안나회 요셉회 있습니다.

8. 북가주 골프대회 기념품 받아가세요

- ◆ 지난 5월 16일 북가주한인성당 친선 골프대회 참가하신분들은 기념품 받아가세요
- ◆ 문의 - 이상인 시메온(행사부장) 김지미 안토니오(골프회장)

9. 故 서순금 마리아님(김 어거스틴, 헬레나 모친) 연도

- ◆ 일시 8월 11일(화) 저녁미사 후
- ◆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0.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84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	\$38,445.00

11.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5구역 보 조 :김 수산나 (\$200)
- ◆ 다음주 점심봉사 : 보 조: 신부님 이호순 수산나(\$200)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1,000) 김중순(\$100)	\$61,88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3,880단	242,479

알 림

성당 Wi Fi가 새롭게 작동합니다-

연결 시그널 : SacKcc\_WiFi 패스워드 : abcde12345

냉장고 청소- 오늘 미사후까지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임안내

- 사목회 : 26일(일) 엘리사벳 방
- 연령회 모임 : 26일(일) 교중 미사후 1시 성 마태오방
- ◆ 점심 제공 -새 연령회원 환영 합니다

주일 /한글학교

● 북가주 6개 한인 성당 청소년 하계 캠프 안내

- ◆ 날짜 :8월 7일 -9일 (2박 3일)
- ◆ 대상 : 중,고등학생 (2015년 9월 기준 7학년-12학년)
- ◆ 참가 인원 파악 및 준비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신청 필수
- 주일학교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 ◆ 문의:이시래 베아타(919)749-0632/장선영 스킨스타티카367-3363

전례 봉사	07월 26일	08월 2일	08월 9일	08월 16일
해 설	김화선 (아 네 스)	이혜련 (데 레 사)	김은선 (제노베파)	임상일 (프란치스코)
1 독 서	안기창(프란치스코)	윤재경 (알베르토)	김형일 (안드레아)	김상범 (히지노)
2 독 서	최금주 (요안나)	윤은실 (비비안나)	오한빛 (수산나)	기은희 (마리아)
복 사	양경민 (안드레아) 류승교( 바 오 로)	김재열 (스테파노) 이대원 (베드로)	김민규( 다미아노) 윤여훈 (로마노)	윤성훈( 가브리엘) 송돈희 (요 셉)
/기도/청소	9EG-10DW	1FE~2F0	1FE~2F0	1FE~2F0
헌금 위원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해	이나숙, 정의주	송돈희, 임상일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b>신세계 여행사</b> 80 Grand Ave. #202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7495</p>	<p><b>한국 위성방송</b>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b>FARMERS</b> <b>배정순 종합보험</b>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b>지도</b> <b>(Creative Art Class)</b>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4</p>	<p><b>에어컨 수리</b> <b>(Air Conditioner)</b>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올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b>East WestTravel</b> <b>(동서여행사)</b>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b>부동산·융자</b>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b>제인 안 변호사</b> 파산법 전문 (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b>서은미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b>Exigo ITSolutions</b> <b>컴퓨터 수리</b>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a href="mailto:support@exigoits.com">support@exigoits.com</a> web add.:<a href="http://www.exigoits.com">www.exigoits.com</a> ☎ (916) 287-1439</p>	<p><b>1.2.3AutoBody/정비</b>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b>JIMMY KIM</b> <b>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일날 성당에서 보어드립시다 <b>연 락:전비아 (916)548-7132</b> <b>이플로렌시아(916)176-1834</b> 사 회 복 지 부</p>	<p><b>ShoGun Sushi</b>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b>Law Office of</b> <b>Daniel S. Lee</b>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a href="mailto:danleelaw@gmail.com">danleelaw@gmail.com</a> ☎(916)922-0107</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Paul Choi&amp;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승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42-44 제 2 독서 에페소서 4:1-6 복 음 요한 6:1-15

화답송: 시편 145(144), 10-11, 15-16, 17-18 (◎ 16참조)

화답송



## 각자도생(各自圖生)과 더불어 살기

교우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 한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결국 저마다 스스로 살 궁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각자도생! 이 슬프고도 이기적인 말 속에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울타리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길에 오를 사람들은 필수품으로 유리창이라도 깨부술 손도끼를 챙겨야 한다(한겨레신문 2015-6-15. 이명수의 사람그물 <각자도생은 불가능하다> 참조)고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맞아 최초 대응과 확산 과정에서 보여 준 국가의 두서 없고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목숨은 제각각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걱정도 무리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각자도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일치를 이루며 살아야 할 신앙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의 양식입니다.(에페 4,1-6) 오늘 제1독서는 예언자 엘리사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면을 전해줍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가진 보리빵과 햇곡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예언자 엘리사)은 배고픈 군중들을 먹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작은 나눔으로 실현 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의 나눔이 그랬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빵 다섯 개를 내어 놓았던 이름 모를 소년의 나눔이 그랬습니다.(2열왕 4,42-44: 요한 6,9) 오늘 독서와 복음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풍요로움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소한 이들의 보잘 것 없는 나눔이 군중을 살렸고 수천 명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내어놓은 몸과 피를 제물로 삼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자리입니다.(에페 4,4-6) 사랑의 고갱이이신 주님께서 친히 몸과 피를 내어 주시니 우리의 생명은 그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 집니다. 그리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고마움을 가득 안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길(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을 망설임 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눔의 신비를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쪼개지고 나누어져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성찬을 차리는 삶이야말로 각자도생의 각박함을 극복할 유일한 길이면서 참 신앙의 길입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그리스도의 몸과 깊은 일치(에페 4,4-6)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동 본당 김영식 요셉 신부

장 중 지

기도  
두드리지 않고  
기다리는  
문은  
마음 벽

유경환 클레멘스·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

---